

안녕하세요. 수지대학지구 엘더 목자 오예지 입니다.

“스텝업이라니...!”라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오래 있었구나 싶어 살짝 놀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여전히 사용해 오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마무리 소감을 나눠보겠습니다.

#### **첫 번째, 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2016 년 처음 대학지구에 발을 디딘 이후, 부목자에서 엘더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신앙이 단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는 스스로를 꾸미는 데에만 익숙한 '종교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제가 부목자에서 엘더까지 오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주변 동역자분들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원종희 목사님, 김은영 전도사님 등 저를 붙들어 세워주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다리기를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연단되어야 할 부분은 많지만, 그런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고 계시고 더 경험할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 **두 번째 저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캠퍼스의 영육 부흥을 위한 질서 확립 및 여러가지 일들과 엄마의 간질성 육종 암판정 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저는 왜 저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면서 조금은 버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어쩌면 가장 이해되지 않는 타이밍에 조용준 목사님께서 저를 캠퍼스로 부르셨습니다. 당황도 했고, 왜 이 시점인지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인 목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 **세 번째,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엘더를 하면서도 고집도 세고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부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엘더들과 함께 지내며 마음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때로는 울고 웃으며 서로를 붙들어준 그 시간이 저에게는 어느 축복보다도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잠깐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엘더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맨 앞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알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 고집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꺾여 나갔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엔 별거 아닌 시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향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 자리에 반드시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각기 다른 역할과 은사를 가진 우리가 대학지구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길 때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깊이 경험했습니다. 함께 스텝업한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에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신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더 뜨겁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운 자리로 올라오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소감은 일부러 간단하게 전합니다. 이제 저는 엘더 목사 직분에서 내려오지만, 제 시간과 마음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캠퍼스 생활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맛있는 식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일들을 기쁘게 나누겠습니다.

함께 동역한 수지대학지구 모든 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엘더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소감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